청소년 녹색문화의 메카, 숲체험 교육활동

한그루녹색회와 녹색문화재단 공동 운영

〈청소년 녹색교육센터 조감도〉

올해 6월부터 실시될 푸른숲선도원 숲체험활동(한그루녹색회와 한국녹색문화재단 공동진행)은 우리 숲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산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보람된 활동입니다. 또한, 교토의정서 발효와 더불어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숲가꾸기활동에 참여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청소년녹색교육센터는 사람들이 숲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될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상설 숲 체험활동 시설입니다. 현재 산림청과 한국녹색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청소년 녹색교육센터 조성중에 있으며, 2007년 7월 개원예정입니다.

2006년 6월부터 한그루녹색회와 녹색문화재단의 공동진행으로 푸른숲선도원 숲체험활동이 실시됩니다. 숲체험활동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합니다. 숲체험 교육활동은 숲과 함께 교감하며 숲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는 현장체험교육, 학교교육 및 현장교육을 연계한 통합적 인성교육, 생산적 자연체험활동을 통한 생명 · 생태 · 환경교육을 목표로 삼고 진행됩니다.

숲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상세계획은 추후에 한그루녹색회 홈페이지(www.greencause.or.kr)를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푸른숲선도원과 지도교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그루녹색회와 숲체험교육활동을 공동진행하는 녹색문화재단은 복권기금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환원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한국녹색문화재단 홈페이지: www.forestfd.or.kr TEL : 02-2285-2035

안녕하세요.
한국녹색문화재단이사장 이형모입니다.
세상의 푸르름이 더해가고 있는 봄날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봄은 자연이 주는 생명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숲은 우리의 미래인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할 터전입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직접 체험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과제이며 값진 즐거움입니다. 숲을 체험한다는 것은 결코 나무와 들꽃의 이름을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의 눈으로 보았는가도 중요합니다.

푸른숲선도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름 모를 들꽃과 곤충들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숲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녹색문화재단과 한그루녹색회가 진행하는 청소년체험활동은 2007년 개원하는 숲 체험교육시설인 "청소년녹색교육센터"의 운영프로그램으로, 이번 기회을 통해 푸른숲선도원 여러분들이 많은 숲 속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숲속 친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

한국녹색문화재단은 언제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처럼, 미래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이 항상 숲과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색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녹색문화재단 이사장 이 형 모 이형모